病院街 병원인들

중국 정부로부터 '우의상(友誼賞)' 수상

◆김용진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교수가 최근 중국 중앙정부에서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상인 '우의상(友誼賞 Award for Friendship)'을 수상했다.

우의상은 1991년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설립되어 문화, 교육 및 과학발전에 큰 기여를 한 외국인 경영자 또는 전문가에게 수여하는 중국 최고권위의 상이다.

김용진 교수는 2000년부터 연변, 하얼빈 등에서 3천여명에 이르는 저소득층의 선천성 심장병환아들을 수술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2009년 9월 우의상 수여를 결정했다.